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설 연휴로 인해 이번 주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수~금)는 쉽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4. 2월 추천도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르기도 했다>, <웨이 메이커>,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셔> 이상 3권입니다.
5. 이번 주 토요일(2/13) 청소년당은 캄보디아 목장(이현호 집사)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2/14) 주일간식당은 로템 목장(정진숙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6. '하늘문의 만나' 2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 가셔서 꼭 묵상해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8일
예배기도(2부)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조정석 집사	김윤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헵시바목장 (김금옥권사)	로템목장 (정진숙권사)	한나목장 (이영선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미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2021년
 2월 7일
 07-06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5번(시편 8:1-9) 다같이
*경배찬송	29장(통 29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35장(통 133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백성근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35:1-15, 마 28:20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다시금 시작이다’(2)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그는 넘어나 아주 얹드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설 연휴로 인해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설 연휴로 인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이번 주는 2/8(월)~2/9(화)만 가집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주 하늘을 보자

추위도 추위지만, 이렇게 눈이 자주 내리는 겨울은 태어나 손에 꼽을 정도다. 눈 내리는 날의 정취와 낭만은 사라진지 오래다. 어떤 땐 쌓인 눈을 치우느라 한나절을 보낸 적도 있다. 이제 눈이 내릴 거란 일기예보를 접하기만 해도 경이(?)가 들 정도다. 그러다가 눈 치우는 일에 이골이 났는지 나름 요령이 생겼다. 우선 교회 앞길에 인근 동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내었다. 그런 다음 시간을 두어 교회 2층 테라스, 계단, 교회 처마 밑, 교회마당, 그리고 교회 주변도로까지 순차적으로 치웠다. 폭설이 내린 날은 그도 힘들면 조금씩 나누어 하기도 한다. 그 사이 겨울이라 못한 운동을 시작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에 일부러 먼 곳을 택해 걸었다. 갈 때에야 좋지, 막상 그 먼 거리를 돌아오려니 아찔하다. 사실 이렇게 걷는 산책도 부침(浮沈)이 심하다.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정도다.

그 날도 눈을 치우다 혹한을 벗 삼아 잠시 길을 나섰다. 그렇게 한참을 걸다가 전날 밤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큰 나뭇가지와 마주했다. 길가로 밀쳐내기 위해 잡은 나뭇가지 사이에 수많은 눈이 달려있다. 그렇게 혹한의 계절임에도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었다. 마음이 조금해졌다. 내일에 대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정해 놓은 목적지를 땀 흘리며 향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숨이 턱에 차고 가뻔다. 예전 운동할 때면 느꼈던 흥겨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시간의 한계 안에 갇힌 것만 같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언덕길을 반복해서 걷다 목적지에 닿았다. 돌아갈 길이 아득하다. 한참이나 쉬다 다시금 일어섰다. 굳이 땅을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돌아오는 길엔 하늘만 바라보고 걸었다. 한결 걷기에 수월했다.

삶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가 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세워 시도해 보지만, 그 한계의 끝자락에서 새삼 낭패를 경험하곤 한다. 그러다보면 삶이 조금해진다. 삶의 조금함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끈다. 사람이 땅의 일에만 매여 있으면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신앙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다. 물론 하늘만 바라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적 노력,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면, 언젠가는 낭패를 넘어 목적지에 성큼 다가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힘겹더라도 자주 걷자. 그것도 하늘을 보면서 말이다.

Written by 허영진